

불교문화 발전... 주인의식부터 갖춰라

“80년 대 후반 들어 대대적 불사가 일어 나면서 사찰건축에 치명적 변질과 상처를 입었다. 행정당국과 스님들이 반성해야 한다. 절집에서 스님들의 일상적 행위가 불교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으로 나타나는 주 체의식이 필요하다.”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 회의장에서는 ‘1700년 불교문화 어떻게 보 전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불교중흥 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참석 한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은 스님들의 부족 한 주인의식이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활 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前 청장은 중창불사와 성보박물관 문제를 예 로 들면서 불교문화발전을 위한 스님들의 안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 前 청장은 “중창비까지 동원된 대규모 중창불사는 산사의 미학을 완전히 일그 러트려 버렸다. 산사의 아름다운 절마당이 허 전하기 그지없는 멋진 넓은 마당으로 변 한 것에는 허망함조차 일었다”고 말했다.

긴 세월 유지된 아름다운 가람배치와 조 형미, 풍경 등이 편리함을 이유로 외면당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산사 진입로가 차 량 통행의 편의성을 위해 넓게 포장돼 세 속과 성역의 시·공간을 가트던 역할이 상 실됐다. 소박한 아름다움을 대표했던 무위 사는 더 이상 소박함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유홍준 前 청장은 재료의 문제도 지적했 다. 목조 건축 자체 중 으뜸인 춘암목과 금 강송 대신 저렴한 캐나다 수입목을 사용하 면서 전통 목조건축의 질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깊은 질감이 빠진 목재를 이용한 단청은 페인트칠을 한 것 같은 이질감을 준다. 무늬가 없는 일률적 형태의 KS 기와는 플라스틱을 얹은 듯 밋밋하기만 하다.

불상 개금도 예외가 아니다. 통일신라 경덕왕 때 명작으로 꼽히는 불국사 금동아 미타여래좌상과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은 불 교조각사에서 잘 소개되지 않는다. 잘못된 개금으로 불상 이미지가 전혀 보이지 때문 이다.

유홍준 前 청장은 폐사지 복원은 사안별 로 나눠서 판단하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폐사지 복원은 불교계에서 주로 복원을 주장하고 학자들은 현상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 유 前 청장은 부여 정림사 복원은 찬 성하지만 황룡사의 경우 복원을 위한 문화 능력과 목재 문제 등을 이유로 후대에 맡기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 前 청장은 성보박물관이 불교계가 근 래에 이룩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 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아 성보박물관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성보박물관은 명찰을 가르는 기준처럼 인식되면서 각 사찰마다 급속도로 확산했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이 불교문화 보존·활용을 위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문화 보존·활용 토론회
유 前 청장, 스님들 안목 강조
무분별 중창불사 전통미 상실
성보박물관 난립, 유물 훼손돼

범하 스님, 관리감독 부실 지적
불교문화유산과 신설 제안도
황평우 소장, 제2석굴암 반대
승가대에 관련학과 개설 주장

다. 그 결과 빈약한 전시공간에 판넬과 모형 을 전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유 前 청장은 분사 중심으로 소장 유물이 많은 일부 사찰에 집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성보박물관 직 원들이 관리인, 관리직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망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유홍준 前 청장은 “박물관 활동을 하려면 사람과 재정이 필수다. 안목 있는 스님과 전 문 학예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前 청장의 발제 후에는 성보문화재 연 구원 범하 스님과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 책연구소장, 김영애 다할미디어 대표가 토 론자로 참석했다.

범하 스님은 사찰의 무분별한 중창불사 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감독관청의 문 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독관청의 무계획성과 정책 부재가 중창불사의 문제 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전통사찰에 대한 단계적 보수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을 한다면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 이라며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관 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중 요문화재 보수에 관한 인·허가 감독권한 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문제라며 문화재

청 내 불교문화유산과 신설을 제안했다. 폐사지 복원에 대해 범하 스님은 보존 보 다는 복원을 통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 황 룡사지, 익산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등 경성도와 전라도, 충청도에 대표 사찰 1개 석을 복원하면 관광개발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사찰에 유행처럼 번진 성보박물관은 부실한 운영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증가해 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전국 34 개 성보박물관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절반 이상이 완공 후 제대로 개관도 못하거나 문 화유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다고 지적 했다.

범하 스님은 “박물관 보유 사찰은 어느 불사보다 박물관 운영을 우선해야 한다. 그 러나 개관도 못하고 있는 사찰과 당국은 국 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과 김영애 다할미디어 대표는 유홍준 前 청장 의 지적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황 소장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몇 천 년 전의 역사, 문화적 경관을 복원한다는 것은 폭력이며 기만이다”라며 폐사지 등 유적지

복원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황 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석굴암 건립도 강 하게 반대했다.

황평우 소장은 “제2석굴암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현재 석굴암 의 제습과 유리막 문제 등을 더 연구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중 창불사도 절대보존 경관은 보존하고 주변 에 현대적 중창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또 문화재 보수 문제가 제대로 된 연구·교육 기관 부실에서 비롯된다며 중앙승가대에 한국건축, 공예, 회화 등 이 공예 분야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 님들이 직접 탐을 쌓고 사찰을 보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애 다할미디어 대표는 콘텐츠 기획 자로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불교문화유 산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일반인에게 불교문화유산은 너무 어렵다.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개발 해 일반인이 불교를 쉽게 접하도록 해야한 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무조건적인 중 창불사를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디지털 시 대에 맞는 복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제2석굴암 복원 논란과 관련해서 도 디지털 영상 상영 등의 방법을 먼저 도 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영애 대표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김 대표는 “장기적 플랜 속에서 세 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불사도 심의 시 스템을 갖춰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독도에 암자 지어 스님 살게 하자”

조계종 내 문화재 보수반 등 다양한 불교문화 활용안 제기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교문화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은 독도를 자신 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처하 기 위해 독도에 암자를 짓고 스님을 머 물게 하자고 밝혔다. 또한 제주 울레길 이 인기를 끌며 걷기 열풍을 일으키고 보림사 쌍봉사 화엄사 등 많은 사찰들이 어우러진 순례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종이 뿌리내리던 당시의 역 사적 사실과 맞물리면 걷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은 조계사 인근에 위치한 국가 사적 제 213호 우정총국을 활용한 손으로 편지

쓰기 행사를 제안했다. 조계사 경내를 걸으며 생각을 가다듬은 뒤 우정총국 마당에서 손 편지 쓰기 행사를 열자는 것이다. 황 소장은 이 행사가 디지털 기 기 발달로 손으로 글씨를 쓸 기회가 없 는 현실에서 불교적 정취와 시민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 조 했다.

황 소장은 또 간단한 문화재 수리는 직접 할 수 있는 긴급 보수반을 종단 내 에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사찰과 마찬 가지로 문화재로 지정돼 원활한 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고택들도 간단한 수리는 예산 지원을 통해 직접 하고 있다.

김영애 다할미디어 대표는 디지털 기 술을 통한 중창과 복원의 문제를 해결 하자고 제안했다. 증강 현실 기능을 이 용해 물리적 복원 없이 스마트폰을 갖 다 대면 화면 속에 사찰의 과거 모습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이미 이런 기술을 활용해 현재의 장소에서 과거의 모습이 보이는 서비스를 도입 중이다.

박기범 기자



범하 스님



황평우 연구소장



김영애 다할미디어 대표

“문화재 관리위해 재가자 참여확대 필요”

인터넷 중계 네티즌 반응

네티즌들은 인터넷 실시간 중계로 토 론회를 시청하면서 댓글을 통해 활발하 게 참여했다.

특히 문화재위원 구성과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재가자들의 역할에 많 은 관심이 모아졌다.

네티즌 A씨는 “문화재위원 대부분이 타종교인이라고 들었다. 아무리 전문가 라고 해도 기술·예술적 측면 말고 종교 문화로서의 불교문화를 제대로 이해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도 “문화재 비율 에 맞춰 전문위원의 전문성, 종교 비율 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문화재위원 50%정도는 불교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리 주체에 대한 다양한 의 견도 제기됐다. 수행자인 스님들이 문 화재 관리까지 신경 쓰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재가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 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수행자인 스님들께서 문화재 전문가까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사찰종무원, 신도회, 재가불자 등이 전문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직접 방청하던 한 불자도 “교구에 역량 있는 스님과 재가자들이 모여 불사 심의기구를 만들면 무분별 한 불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산승이 정성껏 사경한 반야심경사경 작품 보급



산승이 정성껏 사경한 반야심경사경 작품의 보시하는 불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승 반원 010-3599-6653
금산선원 : 부산시 사상구 감전 1동 122-39
농협 : 320-0442-4167-11 예금주 : 반원승

산승 반원은 정진기도를 하면서 반야심경 사경을 하였습니다. 통도사 문수 원에 주석하시는 수안 큰스님 은사로 모시고 반야심경에 대한 지도 아래 하 루도 빠짐없이 20여년을 반야심경사경 참선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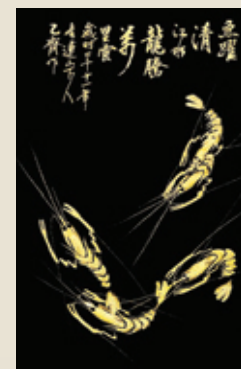
반야심경 사경기도는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정도에 이르게 하고 자시부터 참선으로 사경을 하며 백중날 회향하고 또 불자님을 위하여 원상 을 그리고 육바라밀을 마음에 담아 사경을 하여 인연 있는 불자님들께 부처 님의 가피력으로 행복하고 소원성취 하라고 20여년을 보시해 왔습니다.

원상을 그리는 것은 하나요, 우주 전체입니다. 경을 육각으로 쓴 것은 육바 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모든 기운도 육각에서 생기게 됩 니다. 반야심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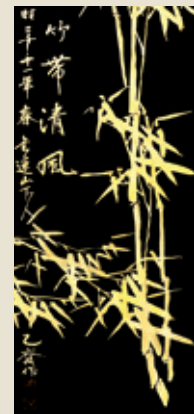
15년간 뇌종양 투병 생활 속에 고통을 참으며 반야심경참선 기도를 하였습니다. 2001년 9월 말일(부처님의 가피력으로 9년간 사경 참선 공덕으로)그 날 밤에도 자시에 사경 후 머리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팽 하기에 이제야 육신을 버리는구나 하고 저 무거운 육신을 더 짊어지고 다닐 필요 없ادم 가벼운 마음으로 구름을 타고 저 세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 경 주신분이 나타나 할 일이 남아 있으니 갈 수 없ادم 25년 생명 연장하라 하면서 죽비로 이마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마는 땀 뚝뚝 버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은 간곳없고 맑은 정신으로 지금 산승 반원은 새 생명 으로 반야심경 사경에 혼을 담아 수행정진 하고 있습니다. 산승 반원은 생 을 다하는 날까지 사경 참선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기도 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을 소지하게 되시면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 니다. 이 경을 소장하고 보시하시는 분은 향후 불사를 할 경우 반드시 건립 비에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산승 반원 합장



• 작품명 : 새우
•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재 질 : 한지 금분
• 작가가 : 7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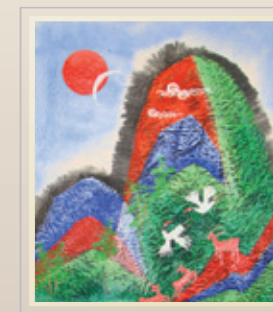
• 작품명 : 竹
• 사이즈 : 가로 22.5cm x 세로 59cm
• 재 질 : 한지 금분
• 작가가 : 100,000원



• 작품명 : 달마
•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재 질 : 한지 먹
• 작가가 : 50,000원



• 작품명 : 연꽃달마
•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재 질 : 한지 먹
• 작가가 : 50,000원



• 작품명 : 십장생
• 사이즈 : 가로 30cm x 세로 45cm
• 재 질 : 한지 석채 혼합
• 작가가 : 300,000원

위 작품은 불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을세 서명한 선생님께서 기증하는 작품입니다. 아래 작품을 소장하시어도 불사에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을세 선생님의 작품세계는 홈페이지 www.sycart.co.kr 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